

탐욕은 배고픈 들개가 똥을 먹고 똥을 싸는 것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3)

조달이 눈앞의 이익만 구하다

조달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총명하고 학문이 넓었으며, 12년 동안 죄선하여 정(定)에 들어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 열두 가지 두타(頭陀)에 애초부터 모자람이 없었고, 부정관(不淨觀)에 들어 들숨 날숨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며, 세간 제일법으로부터 정법까지를 모두 날날이 분별하여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들은 바대로 그때그때 익혀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 그 뜻이 점차 퇴보하면서 점차로 나쁜 생각을 내기 시작하여 남들의 공양이나 바라고 세간의 이익만을 탐내 집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달은 세존 앞에 가서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신족(神足)의 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들은 뒤에 잘 수행하겠으며, 저로 하여금 신족을 얻게만 해주신다면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법을 전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신족은 그만 두어라. 너는 어찌하여 나의 법 중에 중요하고 중요한 무상의 이치와 괴로움의 이치와 공의 이치와 무아의 이치, 이 네 가지 이치는 배우려 하지 않느냐?”

조달은 생각했다.
“여래가 내게 신족의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자기보다 훌륭해지고자기가 나보다 못하게 되면 창피할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래를 버리고 사리불을 찾아가 신족의 도를 구하려 했다. 그러자 사리불은 조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좀 그만 두시오. 그대는 왜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조달은 또 생각했다.

“이 사리불이란 자를 모두들 지혜제일이라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반딧불을 해나 달에 견주는 것과 같다. 외우고 익힌 것으로 본다면야 감히 나를 비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나도 신족의 도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리불 따위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조달은 사리불을 떠나 이번엔 목련을 찾아가 신족의 도를 구했다.
조달의 얘기를 들은 목련이 말했다.

“제발 그만 하시오. 그대의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범행을 닦기로 한 사람이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는 것이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이치를 깨닫고, 다시 4선(禪)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족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련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조달이 생각했다.

“목련이란 사람이 신족으로는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까닭은 아마도 자기가 나보다 못해질까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명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족의 도를 배우려 했지만 모두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구나. 아우 아난이 들은 것도 많고 학문이 깊으니 덕망을 두루 갖추었으니 이제 그에게 신족의 도를 물어야겠다.”

조달은 아난을 찾아가 물었다.
“제가 듣자하니 그대가 신족을 도를 잘 안다 하니 나에게 그 도를 알려 주시오. 내가 신족을 얻게 되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불법을 전하겠습니다.”

조달의 얘기를 들은 아난이 신족의 도를 조달에게 말했다. 조달은 아난의 설명을 들은 뒤에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서 아난의 말대로 신족의 도를 닦기 시작했다. 허공 안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도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 때도 아닌 때에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고, 비새가 새끼를 배면 두 생명이 모두 위험한 것과 같다. 옛날에 한 무리의 수리 떼가 저마다 알을 까고서 새끼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만약 날기를 배워 허공을 날게 되었을 때, 땅이 쟁반만 하게 보이면 그 때부터는 더 높이 올라가지 마라. 사나운 바람을 만나면 너희들은 몸뚱이가 산산 조각나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끼들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너무 높이 날아올라가 날다가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비구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비구들이야, 그러므로 마치 거북 떼와 같이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거북이 새끼들에게 말하곤 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삽화 · 강병호

를 닦은 조달은 짓먹이 아이로 변하여 아사세 태자의 무릎에 나타나 짓먹이 짓을 했다. 그러자 태자는 이것이 조달의 몸임을 알면서도 하루 종일 장난을 치며 놀아주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짝짜궁을 하기도 하면서 태자는 생각했다.

“조달의 신족이야말로 부처님보다도 훌륭하구나. 이렇게 수없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아사세 태자는 조달에게 날마다 5백 가마의 밥을 공양하고 때마다 모자람이 없게 공양을 했다. 그때 비구들이 아사세 태자가 조달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조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조달의 공양을 부러워하지 마라. 조달은 스스로 합정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합정에 빠지게 하니, 둘이 다 같이 업을 짓게 될 것이다.

보호하고 어디 어디에는 절대 가지 마라. 거기에는 사냥꾼이 숨어 있어서 너희들을 잡아 갈 것이다.’ 그렇지만 거북 새끼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함께 즐기며 재미있게 놀다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간신히 돌아온 새끼에게 거북은 물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고 그곳에서 놀았는데, 사냥꾼은 보이지 않고 긴 울가미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거북이 새끼에게 말했다. ‘너희와 같은 선조들도 모두 그 울가미에 걸려 사냥꾼에게 잡혀가 죽었다.’

비구들이,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마치 배고픈 들개가 다른 짐승의 똥을 먹고 다시 똥을 누는 것처럼 조달 비구가 공양을 탐내는 것 또한 그와 같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㉓



한 여름의 단상

살과 죽음

무더위가 한창이던 며칠 전, 지병으로 투병해오던 제부가 운명을 달리 했다. 10여 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을 전전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전화만 와도 늘 나쁜 소식일까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는데, 기어이 부고를 접하고 말았다.

우리 내외는 함께 빈소가 마련된 서울로 갔다. 동생의 시택은 시어른께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나와 동생이었지만 종교에 관해서만은 인연이 달랐다. 하지만 나는 동생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은 생각대로 기독교식으로 치러졌다. 문상객 역시 교회 신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불교식이든 기독교식이든 고인 앞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빈소를 지키다보니 영가 전에 차 한 잔 올리지 않고 밥 한 그릇 올리지 않는 것은 왠지 좀 쓸쓸해 보였다.

죽음을 육신의 죽음만으로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쓸 데 없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죽음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음을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일 것이다. 낫이라는 게 있고 영혼이라 부르는 것이 그것일 것인데, 생전에 하던 일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길을 가야 하는 고인에게 차 한 잔, 밥 한 그릇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생전의 제부가 눈에 자꾸 밟혔다.

자꾸만 솟아오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엔 온통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들이 들어찼다. 숙제였다. 부처님이 그렇게 궁금해 했던 생사의 의문이 아니던가.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맞을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회향해야 할까. 불국토 상조회의 증서를 휴가 온 아들 내외에게 건네며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중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지 말고 이곳에 연락해서 일을 처리라”고 했더니 아들이 나무란다. ‘죽음’ 앞에서 ‘나’를 생각하니 현실하게 생사의 뜻이 궁금해지는 하루였다.

휴가를 산사에서

아들 가족 딸 가족이 휴가라고 부산 우리 집으로 왔다. 해마다 여름이면 늘 그래왔던 터였다. 이번엔 절에 가서 쉬면 어떻게 싶어 아이들 가족에게 물었다. 모두 좋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해해 스님이 계시는 경산의 반룡사(盤龍寺)로 갔다. 법당 참배를 마치고 도량 곳곳을 돌아보며 뛰어다니는 꼬마 손자들과 처음 와본 아들 딸 가족들도 좋아했다. 스님은 어릴 때 보았던 애들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반룡사는 원효 스님과 요섭 공주와의 사이에 태어난 실종이 자란 도량이다. 아담하고 평안한 도량은 멀리 내려다보는 경관이 절경이다. 우선 아이들

이 맘껏 뛰어 놀아도 걱정 할 일이 없고 누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탈 수 있는 해마도 달아 놓았다. 스님 지어주신 공양으로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다. 절에서 맞는 밤은 어느 때보다 한가롭고 편안했다. 어느 휴가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기분이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이며, 숲속에서 건너오는 밤바람, 밤바람 속에 나부끼는 풍경소리, 그야말로 휴가다운 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이 삶은 옥수수과 직접 키운 것이라며 방울 토마토를 가득 내오셨다. 오랜만에 빈 스님과 우리 식구들은 그동안의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든 것 같다. 시원한 바람과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행복한 밤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각자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절 뒷밭으로 갔다. 밭엔 갖가지 채소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고추도 따고 방울토마토도 따고 오이, 가지, 호박, 깻잎도 따다.

어린 손주들이 신기한 듯 신이 났다. 무엇보다 맘껏 놀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이다. 손주들에게 모처럼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손주들뿐만 아니라 점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모처럼 근사한 휴가를 보낸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스님이 밭에서 탄 채소들을 선물로 싸주셨다. 우리는 감사의 뜻으로 법당에 등을 달았다. 어린 손자들까지 고사리 손으로 부처님 전에 절을 했다. 억지로 불교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말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포교라는 생각을 했다.

달맞이꽃과 범정 스님

반룡사 마당에 노오란 달맞이꽃이 한창 보기 좋게 피어있다. 나는 이 꽃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다. 오늘 이곳에서 보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다. 이유는 옛날에 송광사 불일암에 갔을 때 범정 스님께서 해가 막 질 무렵인데 마당에 자리를 깔고 우리 일행과 차 한 잔 하기로 했던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보았던 달맞이꽃의 기억 때문이다.

작은 언덕에 쪽쪽 뻗어 서 있던 달맞이꽃들이 동시에 피기 시작했다. 한 장의 꽃잎이 파르르 떨면서 피어나고 또 다음 꽃잎이 그렇게 피어 순식간에 다섯 장이 꽃잎이 피어났다. 마치 나비 떼가 동시에 날아 앉은 듯한 광경이었다. 달맞이꽃이 피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우리 일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달맞이꽃은 다른 꽃들과는 달리 순식간에 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피어 있다가 낮이 되면 마른 꽃처럼 말려서 잠든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고, 범정 스님이 생각났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 
[벽돌 한장]
 10,000원
- 
[책상·의자]
 50,000원
- 
[땅 한평]
 100,000원
- 
[식수대]
 300,000원
- 
[컴퓨터]
 1,000,000원
- 
[교실 한동]
 10,000,000원
-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